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동아시아 평화 이해

김민지*

【요약】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오래된 역사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인정과 존중, 조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중심한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그리스도교 기반 신종교로서 한국 신종교의 전통과 융합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다양한 실천들을 경주해 왔다. 이를 통해 종교가 선교목적을 넘어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가치관을 제공하고 교육, 시민 간 교류, 문화교류 등 다양한 실천과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신냉전시대의 위기를 넘어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교계가 평화를 위한 연대의 중심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동아시아, 평화, 문선명, 신종교

I. 서론

냉전이 종식되고 21세기 들어 세계화(globalization)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평화로운 지구공동체의 실현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졌다. 국가 간 교류가 양적으로 증대되는 차원을 넘어 국가를 중심한 경제, 정치, 문화의 경계가 낮아지고 상호연관성이 높아지는 세계화가 생활 속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이다. 초국가적 기업의

* 선문대학교 조교수, neojinha@hanmail.net

성장과 초국가적 정치연대의 강화, 문화의 세계적 공유 등으로 근대를 상징하는 민족 국가의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흐름은 이러한 예상을 무색 하게 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태평양 횡단 교역량이 대서양 횡단 교역량을 두 배 이상 능가하고 한중일,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5개국의 GDP 합계가 유럽연합(EU) 27개국의 GDP 총합을 앞지르는 등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지만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과 같은 공동경제권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국가를 초월하여 지역 내 국가 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협력을 이루면서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지역경제권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경제권의 출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 협력은 요원해 보인다. 물론 1993-4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초청하여 'ASEAN+3' 정상회담을 비공식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1997년 공식적으로 'ASEAN+3'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1999년부터는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²⁾ 특히 2001년 'ASEAN+3'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이 작성한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며』라는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지역 국가들의 정치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EAC)를 이룰 것을 목표로 정하고 'ASEAN+3'를 동아시아정상회의로 전환할 것을 공감하였다.³⁾

이후 2005년부터 동아시아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지만 정례적인 회의 차원에 머물고 있어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에 대한 희망은 크지 않다. 경제적·정치적 동아시아공동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를 협력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지역적 비전과 가치, 즉 동아시아성이 형성되어야 하지만 한중일 3국은 반목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과 미국의 G2 시대를 선언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려는 장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주변국인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한국과 동북공정, 불법어로 등으로 직접적 갈등을 빚으며 영토·역사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 또한 군사비지출을

2) 최영중,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이론, 현황 및 전망」, 한국동북아시아지역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261-264쪽.

3) 최태욱, 「동양평화론의 21세기적 계승: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9), 355쪽.

늘리면서 평화헌법 폐지, 집단자위권 행사, 독도 영토분쟁 등으로 주변국을 경계하면서 미국과의 강력한 연대로 동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을 침략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기에 자위권을 중심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주변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를 진행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의 패권대립이 이어지는 신냉전질서의 돌파구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번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오래된 역사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인정과 존중, 조화와 협력으로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창교된 신종교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국제적인 실천을 이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평화 일반과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정리해보고 이러한 이해와 실천이 향후 동아시아 평화 구축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평화이해

1. 평화 일반에 대한 이해

1950년대까지 평화는 폭력이나 테러,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이러한 직접적 폭력의 근원이 되는 사회 구조적인 폭력을 인식하고 보다 근원적인 평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68년 다스굽타(Sugata Dasgupta)는 전쟁의 억제와 회피라는 좁은 의미에서의 소극적 평화에 대해 ‘비평화(Peacelessness)’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평화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그는 가난한 제3세계 국가는 전쟁이 없을 때에도 기아나 빈곤, 질병 등의 문제로 평화를 경험할 수

4) 전홍석, 「동아시아 문명공동체 로드맵」, 『양명학』 50(2018), 203-205쪽.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전쟁의 종식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에도 평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사회의 갈등과 폭력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평화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⁵⁾

이러한 문제제기에 이어 갈통(Johan Galtung)은 폭력을 보다 세분화하여 물리적 폭력과 같은 직접적 폭력과 사회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인 폭력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직접적 폭력이란 폭력의 행위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폭력이지만 구조적 폭력은 사회구조나 관심, 경제적인 상황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관찰되지 않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폭력이다. 따라서 직접적 폭력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어 상호 공감 위에 근절하기 용이하지만 구조적인 폭력은 각자가 처한 구조에 따라 인식을 공유하기 힘들고 그만큼 개선하기도 힘든 면이 있다.⁶⁾

이러한 구조적 폭력보다 더 근원적인 폭력으로 문화적 폭력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문화적 폭력은 종교와 사상, 언어와 가치관 등과 같이 상징적인 것으로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와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화적 폭력이라고 예를 들었다. 유일신 종교나 이데올로기는 자신들의 신념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에 배치되는 다른 민족이나 인종, 국가 등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⁷⁾

그중에서도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등의 유일신 종교는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사를 반복해왔다. 유일신 종교를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으며 같은 종교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을 구분하는 선악의 이분법을 가지게 된다. 진정한 믿음을 얻은 이들은 구원을 약속받은 선민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열등한 존재나 악한 존재로 규정하고 개종하고자 노력한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 태도는 개종하지 않는 타인을 악마/사탄으로 바라보게 하며 악을 멸한다는 종교적 명분으로 구조적 폭력은 물론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한다.⁸⁾

아말로도스(Michael Amaladoss) 또한 이러한 갈통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다른 종교인을 악마로 규정하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를 배타적으로 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5) 토다 기요시(戸田 清), 김원식 역, 『환경학과 평화학』 (서울: 녹색평론사, 2003), 18쪽.

6) 요한 갈통,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19-22쪽.

7) 위의 책, 28-29쪽.

8) 위의 책, 425쪽.

가능하게 해준다고 분석하였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부끄럽거나 고통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응징하는 자랑스러운 종교적 사역으로 생각하게 된다.⁹⁾

20세기까지 서구 사회가 동아시아에 대해 견지해 왔던 서구중심주의의 근원도 그리스도교의 이런 근본주의적인 신앙태도에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버(Max Weber)는 합리적인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서양 문화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기반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교의 기반이 없는 인도와 중국 같은 동양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¹⁰⁾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은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가질 수 없게 하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문화적 폭력인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요청된다. 그런 맥락에서 20세기 후반 많은 평화학자들은 배타적인 유일신 신앙이 아닌 상호 공존의 원리를 강조해온 동양의 종교와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도 1954년 한국에서 창립한 그리스도교 기반 신종교로서 짧은 기간 동안 전세계적으로 선교의 기반을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세계적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평화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종교는 다른 종교를 상호 존중해야 하며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종교는 평화로운 세계를 희구하는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온 방편으로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발달에 따라 그 진리를 밝히는 범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각 종교는 하나님께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언어와 습관,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시대 그 지역에 적합한 종교를 세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¹¹⁾

이러한 관점은 자신의 종교를 중심으로 타종교를 배타적으로 이해했던 종교의 전례를 넘어 초월적 신을 중심으로 종교의 다원적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히크(John Hick)

9) Michael Amaladoss, Religion for Peace, *America* 185(19) (2001), pp.6-8.

10) Sebastian Guzman, James Hill, *Max Weber's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don: Macat Library, 2017).

11)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2001), 311쪽.

과 각기 다른 전통과 의례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본질을 보면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신앙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 등의 종교다원주의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¹²⁾

물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초종교적 관점은 종교다원주의보다는 한국적 종교다원주의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한 사회 안에 유교와 불교, 도교의 사상이 공존하였으며 특별한 갈등이나 모순 없이 한 사람 내부에서도 여러 종교적 가치가 상호 관련을 맺으며 중층적으로 자리하는 종교다원주의를 경험해 왔다.¹³⁾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시 한국의 신종교로서 초종교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자 근원자이기에 인종과 종교, 문화를 초월하여 계시며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고 보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모든 인류가 종교를 초월하여 한 가족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라는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종교는 종단의 선교와 성장을 위한 노력보다 평화세계를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하며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우선적으로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에 앞장서면서 타종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입장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차별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선교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⁴⁾

둘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사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생활하는 세계가 천국, 즉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현세적이고 세계적인 평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¹⁵⁾ 살아있는 지상의 생활을 이상적인 세계, 즉 평화로운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비전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추구해온 궁극적 가치로서 사후에 가게 되는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세계를 변혁하는 구체적인 이상이였다. 이러한 평화세계의 이상은 종교를 넘어선 정치, 경제, 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종합적 이상사회로서 서구 근대의 종교관을 넘어 삶의 총체적 영역에 대한 해답과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었다.¹⁶⁾

모든 종교는 이상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천국과 극락과 같은 사후의 이상 세계관과 지상의 불합리하고 결핍된 부분을 극복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유토

12) 황진수, 「문선명 선생의 종교관에 관한 연구: 다원주의와 통일주의의 평화적 공존」, 『평화와 종교』 1 (2016), 50쪽.

13) 김종서, 「현대 종교다원주의와 그 한국적 독특성 연구」, 『종교학연구』 19(2000), 33-48쪽.

14) 김민지·안연희·강화명, 『종교, 평화의 길인가』 (서울: 미래문화사, 2015), 163-165쪽.

15) 위의 책, 165쪽.

16) 안연희,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과 세계공동체 비전: ‘국경철폐’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3(2017), 169-170쪽.

피아적 이상세계관이 있다. 서구의 종교는 근대체제 속에서 정교분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실세계와 떨어져 종교공동체 안에서의 이상으로 축소되거나 사후의 이상세계로 한정되었다.¹⁷⁾ 이에 비해 한국의 신종교는 동양의 여러 사상의 기반 위에 조선 말기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모아져 현실세계를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의미로서 개벽사상을 가지고 있었다.¹⁸⁾ 물론 교단에 따라 개벽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이해는 차이가 있지만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부조리한 선천시대가 끝나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문명의 세상인 후천시대가 올 것이라는 현세적인 이상세계가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었다.¹⁹⁾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한 그리스도교에 기반한 한국의 신종교로서 사후의 이상세계는 물론 현세에서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벽사상을 안고 있었다. 윤승용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교회를 중심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 평화로운 이상세계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이름으로 창립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된 기독교 평신도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²⁰⁾

2. 평화실현에 대한 이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초종교적이고 현세적인 평화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실현의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인간 자체의 근원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평화의 근원은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에 있다고 믿는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 인간이 이루는 평화는 임시적이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창조된 자신의 존재가치를 되찾아야 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얻는 것과

17) 윤승용, 「한국종교의 이상세계론, 그 연구를 위한 시론」, 『신종교연구』 29 (2013), 59-60쪽.

18) 김홍철, 「근현대 한국신종교의 개벽사상 고찰」, 『한국종교』 35 (2012), 7쪽.

19) 신진식, 「신종교의 개벽사상 비교」, 『한국철학논집』 56(2018), 85쪽.

20) 윤승용, 「이상세계 실현과 통일교회의 진로」, 고건호 외, 『포스트 문 시대의 통일교회』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4).

같은 귀중한 일이다. 그 나침반을 따라 마음과 몸을 성장시키면 평화로운 개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선명 선생이 삶의 첫 표어로 삼은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몸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¹⁾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일하여 내면의 평화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종교가 추구해온 수신(修身)의 정신과 상통된다. 인간의 근원이 궁극적 실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근본적인 개인의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자신의 신성한 가치를 발견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인격이 성장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 역시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이라는 같은 부모를 둔 형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나와 타인의 경계를 부모이신 하나님을 통해 형제의 관계로 인식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평화세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²²⁾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러한 인식과 실천을 하기 위한 경험의 공간으로 가정을 강조한다. 가정은 나와 타인의 경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조화를 추구한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사랑하며 부부라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가정을 만들게 되면 사랑에 기반한 헌신과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지며 부모가 되어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 부부와 형제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되는 가정은 사랑의 학교이자 평화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교본과 같다.²³⁾

문선명 선생은 평화를 상대와 수평을 이루어 조화와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평화의 평(平, horizontal)은 주체와 대상의 두 존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서로의 개체성과 차이를 포용하면서 상호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 작용의 전제가 요청된다. 평화의 화(和, harmony)는 수평적 위치를 가진 두 존재가 조화와 화해를 이루는 관계의 작용이다. 모든 존재들이 다른 존재를 자신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사랑의 상응적 관계 속에서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룰 때 평화가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²⁴⁾

이상적인 가정은 이러한 평화를 경험하는 모형이자 기지가 된다. 문선명 선생은 어린 시절 산에서 뛰어놀다 잠이 든 업어주시던 아버지의 등에서 평화를 배웠다고 회상

2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서울: 성화사, 2013), 1071쪽.

22) 안연희, 위의 글, 176쪽.

23)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565쪽.

24) 김민지 · 안연희 · 강화명, 위의 책, 166-168쪽.

한다.²⁵⁾ 이상적인 가정은 부모·부부·형제·자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휼하여 인격을 성숙시키는 터전인 동시에 상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긍정을 바탕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경험할 평화의 기반이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편적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참사랑에 기초한 가족의 사랑은 보다 큰 공동체인 사회와 국가로 확장된다. 더 큰 전체를 위하고자 하는 사랑은 혈연에 기반한 가정을 넘어 모든 인류를 나의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류한가족의 이념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나와 타인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듯이 나의 가족과 타인의 가족 역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존중되어야 하며 인종과 국가, 종교와 문화의 경계 없이 인류는 서로를 하나의 가족으로 느끼는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평화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인류의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모이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랑과 화합을 경험해야 하는 가정은 위계와 단절을 경험하는 불행의 공간이 되었고 이기심에 기반한 가정과 사회, 국가가 되어 인종과 국가, 종교와 언어 등의 경계는 강화되어 차별과 불평등, 갈등과 폭력의 세계가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평화의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하는 개인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며 서로를 위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가정이 사회와 국가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한국과 일본, 베트남과 프랑스 등 역사적 원한관계가 있는 국가와 백인과 흑인 등 오랜 지배와 억압이 있는 인종의 경계를 넘어 남녀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이러한 가정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 된다고 강조해 왔다.

나아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서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미 세계는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국가의 경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지구촌사회가 되었다.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는 정체와 성장을 함께 공유하는 경제공동체가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초월하여 유학과 취업 등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또 다른 분쟁과 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넘어 진정한 세계공동체를 이루

25)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과주: 김영사, 2009), 15쪽.

려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이상을 추구해온 종교가 중심이 되어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평화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문선명 선생은 교단 창립 초기인 1960년대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중심으로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평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실천을 해 왔다. 교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시기에 다양한 정치, 경제적 실천을 하는 선생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으나 21세기 들어 평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들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멀티트랙외교, 비국가행위자 등의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물론 다른 분야와 상호 연대하여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실천의 의미가 연구되고 있다.²⁶⁾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종교는 평화를 위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가치관이자 상징체계로서 문화적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을 제공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III.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

1.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

동아시아란 아시아 대륙의 동쪽 지역을 지칭하는 지리적·문화적 명칭으로 구체적인 국가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라는 명칭은 서양에서 19세기부터 동양의 한국과 중국, 일본을 ‘극동(Far East)’라고 부르던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비슷한 문화를 가진 한국과 북한,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 유교권 국가들을 동아시아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는 문화보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몽골을 더하여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라고 부르다가 냉전 이후에는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미국부터 캐나다,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까지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이라고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지역은 극동에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26) 이러한 연구로는 오기성·김민지·주우철, 「통일노력에 대한 트랙2 외교적 접근: 문선명·김일성 회담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16(1) (2015); 김민지·우평균,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문선명·고르바초프 회담의 함의」, 『평화학연구』 16(5) (2015); 김민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실천을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5(2018) 등이 있다.

아. 아시아·태평양까지 다양한 지역적 명칭으로 불려졌다.²⁷⁾

특히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아시아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좁게는 한국과 중국, 일본만 한정하는 의견부터 넓게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으로 논의하기도 한다. 아직 이러한 여러 논의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어떻게 보는가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에 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개념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평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자 사전적으로 규정되어진 한반도(한국과 북한),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등), 일본, 몽골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국에서 창교된 신종교로서 특별히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시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핵심적인 교리를 정리한 『원리강론』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지역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곳’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곳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유대민족이 있는 중동이 아니라 동방의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가 중 한 곳이라고 논술되어 있다. 이 중 한반도는 선을 숭상하고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였으며 해방 이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남북이 분단된 국가이기에 예수님은 동방의 3국 중 한국으로 재림하게 된다고 설명한다.²⁸⁾ 예수님은 한반도에 재림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나아가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그 모델적 실천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반도가 평화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한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민족이 평화를 이루는데 보다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 존재들의 가치적 평등, 즉 수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하기에 중심은 상호 공존과 조화의 균형을 잡는 기능을 할 뿐 주변에 대한 지배적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한반도 역시 공생의 평화문화를 이루는 비전과 가치관의 중심으로서 균형축을 형성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심성에 기반한 한반도 문명으로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 가게 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 문명의 흐름이 운행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문선명 선생은 인류역사가 하천을 중심으

27) 이재봉, 『두 눈으로 보는 북한』 (서울: 평화세상, 2008), 39-42쪽.

2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2014), 543-563쪽.

로 발달한 인류문명에서 시작되어 지중해반도문명으로 이어졌다가 유럽대륙문명으로, 다시 영국을 중심한 도서문명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면서 이후 미국을 중심한 대륙문명으로 전해진 인류문명은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한반도를 중심한 반도문명으로 회귀하여 꽃피워질 것이라고 하였다.²⁹⁾

한반도에서 세계사의 모든 한이 풀어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은 비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만의 이해는 아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신종교들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 대결이 가장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가 평화로운 세계의 모델이자 중심이 될 것이라는 역설적 해석을 공유하고 있다.³⁰⁾

2. 동아시아 평화 이해와 그 실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이상은 인류가 국가와 인종, 종교와 문화의 장벽 없이 한 가족이 되어 평화롭게 사는 세계공동체라는 구체적인 평화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종교는 자기 종파의 이해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와 서로 반목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각 종교가 진리를 추구해 나온 전통을 상호 존중하고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실천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평화 일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를 구심점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 왔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을 중심한 대륙문명과 일본의 도서문명, 한반도를 중심한 반도문명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는 중국의 대륙문명에 편입되어 있는 듯한 북한과 분단으로 인해 대륙으로 가는 통로로 차단된 채 일본과 같이 섬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한이 공존하고 있다. 즉 지형적으로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지만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기에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분단되었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또한 남한과 북한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세계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환태평양시대의 한반도를 중심한 반도문명에서 평화로운

2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서울: 성화사, 2013), 1585-1586쪽.

30) 김향제, 「기독교계 신종교운동과 한국적 영성」, 『신종교연구』 18(2008), 67쪽.

세계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 중국과 북한을 사랑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시각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미국을 중심한 해양패권과 중국을 중심한 대륙패권이 대결해 왔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해양패권을 중심으로 한반도 지형을 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문선명 선생은 이러한 정치적 해석이 등장하기 전인 1950년대부터 일관되게 환태평양시대를 제시하면서 1954년 세계기독교신명협회를 창립한 이후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으로 선교를 펼치며 한국과 일본, 미국의 3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1991년 문선명 선생이 故 김일성 주석을 만나 회담을 하였고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을 전개해왔다. 평화자동차, 보통강호텔, 세계평화센터, 평화항공여행사 등 경제협력은 직접 추진하고 이산가족상봉과 핵사찰수용, 남북정상회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³²⁾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협력이 요청되기에 이를 위한 세계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활동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차에 걸쳐 남북한을 비롯한 6자 회담국 청년학생 1,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6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을 나누면서 연대를 강화하였다.³³⁾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여러 실천에도 불구하고 북핵 개발 및 안보위협이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직접적인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주변적 실천은 여전히 시도되고 있지만 안보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정부 당국 간의 노력 없이 주변국의 비정부기구의 실천만으로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갈등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다행히 최근 남북한 정부 간 대화가 재기되면서 동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남북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주체적인 노력과 함께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신뢰를 구축하여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31)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평화경』, 1425-1427쪽.

32) 송광석, 「민간기업 대북사업 증진을 위한 평화자동차 사례연구」, 『평화학연구』 11(1) (2010), 89쪽.

33) 위의 글, 99쪽.

다면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비정부적 실천이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들의 교류를 확대해 왔다. 동아시아 평화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중국의 중국중심주의와 일본의 과거사 반성 결여,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등 근대의 민족주의적 국가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다. 중국과 한국, 일본이 각각 자국의 입장만 우선시하고 다른 국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코 동아시아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자국보다 더 큰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국가를 대한다면 상호 인정과 존중이 이루어지며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조화와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벗어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정부 당국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므로 국가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교류가 더욱 요청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우선 신자(信者)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을 풀고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남녀가 결혼하는 국제축복결혼을 1968년부터 실시하였다. 이후 1988년부터 한일 교차교체 축복결혼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1997년까지 4차례에 걸쳐 1만 1천 여 쌍의 한일 축복결혼 가정이 탄생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축복결혼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³⁴⁾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축복결혼을 한 것은 오랜 역사적 반목을 해온 한국과 일본의 남녀가 만나 부부로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우자의 국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즉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이 탄생하는 것이다. 문선명 선생은 한일 축복결혼을 한 가정은 한국 가정도 일본 가정도 아니며 아시아를 사랑하는 아시아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정에서 탄생한 자녀는 두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관계를 넘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³⁵⁾

일반 시민들의 교류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의 장을 마련하였다. 1993년부터 한국 여성 한 사

34) 1988년 2334쌍, 1992년 2219쌍, 1995 5397쌍, 1997 1733쌍이 한국-일본 축복결혼을 하여 10년 동안 총 11,683쌍의 부부가 탄생하였다. Kim, Min Ji. "A Study of Multiculturalism in the Unification Church as Reported in the Press-Based on analysis of media from the last 10 years regarding Japanese immigrant women."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5(6) (2014), p.121.

3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531-532쪽.

람과 일본 여성 한 사람이 자매가 되는 자매결연행사를 진행하여 1995년까지 16만 쌍의 자매가 탄생하였고 1995년에는 미국 여성과 일본 여성 1만 7천 쌍이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우애를 나누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도시나 마을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단계로 발전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와 도시가 결연을 맺는 단계에서 시민과 시민이 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한다면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이 넓어지고 성숙한 시민의식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종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그동안 공동체 구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이해관계에 의한 힘의 논리, 즉 패권주의의 차원에서 연대가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한국이 연대하는 태평양패권과 중국, 북한, 홍콩, 몽골로 이어지는 대륙패권이 대결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세력이 부딪히는 신냉전시대가 동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한 국가가 평화를 주도해서는 안 되고 각 국가 다른 국가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다자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수평적 관계에서 평화가 피어날 수 있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호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경제, 군사, 정치가 아닌 종교가 중심이 되어 역할을 해야 한다.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종교는 평화를 이루는 신념과 명분, 가치관을 제공해주며 현실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다른 분야들과 연계하면서 교육과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 평화 역시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과 공통된 가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종교가 중심이 되어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그동안 천주평화연합(UFP), 세계평화여성연합(WFWP),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 등 글로벌 비정부기구를 설립하여 정치, 경제, 교육, 여성, 청년 등의 평화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시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등 여러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2회 개최된 ‘유관순열사정신선양대회’는 종교가 중심이 되어 평화를 위한 실천을 전개하고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본부는 일본 내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교류와 단합을 할 수 있도록 두 단체가 동참하는 1991년 3월 1일을 맞아 ‘유관순열

36) 배기찬, 『코리아생존전략』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7).

사정신선양대회'를 기획,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한국을 지배하였던 일본의 역사를 반성하는 일본 여성 3천 여 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북한,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러한 대회는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19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 결성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한일 여성들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³⁷⁾

위에서 진술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이해와 역할에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동아시아의 모든 종교는 선교적 목적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일통일에 구심점 역할을 한 동독 교회는 선교적 목적보다 독일통일을 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였기에 시민들을 조직하고 연결할 수 있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시 선교 목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여러 종교들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동아시아 평화에 더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선교적 목적을 위한 실천은 다른 종교와의 연대를 방해하며 그 사회의 고유한 가치와 갈등을 빚게 되므로 평화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평화를 위한 순수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적 실천이 요청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은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까지 주변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연대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종교적 실천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나 기업의 경영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다른 어떠한 노력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동아시아 종교, 특히 한반도의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분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종교가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의 변화가 있을 때 한반도 평화 또한 현실화될 수 있으며 동아시아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종단의 실천 만으로 동아시아 평화가 실현될 수는 없다. 한국의 종교가 연대하여 한국 사회가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종교와 연대한다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7), 1419-1422쪽.

IV. 결론

백 년 전 한국은 조선 말 혼란을 지나 일제 통치가 시작된 지 십 년을 경과하면서 억압과 수탈에 고통 받던 백성들이 현실을 개혁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찾던 시대였다. 한국의 백성들은 조선말에서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수난의 시기를 시대적 전환기이자 개혁의 시대로 보고 후천시대가 도래하기를 갈망하였다. 혼란과 수난이 지나고 개혁이 되면 질서와 평화가 오는 후천시대가 개막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은 동학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삼일독립만세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³⁸⁾

삼일독립만세운동 백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주권국가로 되어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문화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분단 칠십 년이라는 암울한 그늘 아래 불신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북핵 위기 등의 군사적 긴장 또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의 강대국 또한 여전히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분쟁과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신냉전의 대립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에 평화의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삼일운동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종식하고 개혁의 새 시대를 개막할 비전이 필요했듯이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평화의 비전과 실천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천도교와 기독교 등 여러 종교들이 종단을 초월하여 삼일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종교인들이 선교 목적보다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생각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평화일반과 동아시아 평화 이해와 그 실천을 정리해보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그리스도교 기반 신종교로서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계승한 동시에 한국 종교의 전통을 받아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다양한 실천들을 경주해 왔다. 이제 다른 종교와의 연대를 통해 이러한 실천이 더욱 확장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38) 조재국, 「근대한국의 민족종교와 민족운동(Ⅰ)」, 『한국사상과 문화』 7(2000), 360-362쪽.

참고문헌

- 김민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 문선명·학자 총재의 실천을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5, 2018.
- 김민지·안연희·강화명, 『종교, 평화의 길인가』, 서울: 미래문화사, 2015.
- 김민지·우평균, 「글로벌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문선명·고르바초프 회담의 함의」, 『평화학연구』 16(5), 2015.
- 김중서, 「현대 종교다원주의와 그 한국적 독특성 연구」, 『종교학연구』 19, 2000.
- 김향제, 「기독교계 신종교운동과 한국적 영성」, 『신종교연구』 18, 2008.
- 김홍철, 「근현대 한국신종교의 개혁사상 고찰」, 『한국종교』 35, 2012.
-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파주: 김영사, 2009.
- 배기찬, 『코리아생존전략』,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7.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2014.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참부모경』, 서울: 성화사, 2017.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천성경』, 서울: 성화사, 2013.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평화경』, 서울: 성화사, 2013.
- 송광석, 「민간기업 대북사업 증진을 위한 평화자동차 사례연구」, 『평화학연구』 11(1), 2010.
- 신진식, 「신종교의 개혁사상 비교」, 『한국철학논집』 56, 2018.
- 안연희, 「문선명 선생의 이상사회론과 세계공동체 비전: ‘국경철폐’와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3, 2017.
- 오기성·김민지·주우철, 「통일노력에 대한 트랙2 외교적 접근: 문선명·김일성 회담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16(1), 2015.
- 요한 갈통, 강종일 외 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 윤승용, 「이상세계 실현과 통일교회의 진로」, 고건호 외, 『포스트 문 시대의 통일교회』,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4.
- 윤승용, 「한국종교의 이상세계론, 그 연구를 위한 시론」, 『신종교연구』 29, 2013.
- 이재봉, 『두 눈으로 보는 북한』, 서울: 평화세상, 2008.
- 전홍석, 「동아시아 문명공동체 로드맵」, 『양명학』 50, 2018.
- 조재국, 「근대한국의 민족종교와 민족운동(Ⅰ)」, 『한국사상과 문화』 7, 2000.
- 최영중,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이론, 현황 및 전망」, 한국동북아시아지역연대 편, 『동

- 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최태욱, 「동양평화론의 21세기적 계승: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안중근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09.
- 토다 기요시(戸田 清), 김원식 역, 『환경학과 평화학』, 서울: 녹색평론사, 2003.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2001.
- 황진수, 「문선명 선생의 종교관에 관한 연구: 다원주의와 통일주의의 평화적 공존」, 『평화와 종교』 1, 2016.
- Amaladoss, Michael, Religion for Peace, *America* 185(19), 2001.
- Guzman, Sebastian, Hill, James, *Max Weber's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don: Macat Library, 2017.
- Kim, Min Ji, "A Study of Multiculturalism in the Unification Church as Reported in the Press-Based on analysis of media from the last 10 years regarding Japanese immigrant women."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5(6), 2014.

원고접수일: 2018년 11월 30일, 심사일: 2018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7일

연구자 소개: 김민지

① 전공: 여성신학 / 소속과 직위: 신학순결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조직신학, 여성신학, 종교경험

③ 주요논저: 김민지·안연희·강화명, 『종교, 평화의 길인가』, 서울:미래문화사, 2015.

④ E-mail: neojinha@hanmail.net

Abstract

Understanding on Role for Peace of East Asia in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FFWPU)

Kim, Min-Ji

Sun Moon Univ.

Can Korea, Japan, and China make for East Asia peace and turning point for peaceful world order through past liquidation with mutual cooperation, respect and recognition between three nations centered on peace of Korean Peninsula? This study has focused to reply to question as above and to research on understanding and practical activities for peace of East Asia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FWPU is a newly risen religion based on christ church through tradition and integration of new religion in Korea. And it has been practiced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East Asia peace centered on peace of Korean Peninsula. Through various activities, FFWPU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that religion can provide values to promote peace beyond missionary purposes and provide diverse practices and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such as education, civic. And FFWPYU has suggested role for solidarity as pivot to build for peaceful East Asia beyond crisis of new cold-war.

Key words : FFWPU, East Asia, Peace, Sun Myung Moon, New religion